

작물보호協, 소비자단체 초청, 「작물보호제 안전성 세미나」 실시

9.21-22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 경농 연구소 및 공장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알리기 위한 교육, 홍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원을 초청,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주)경농 중앙연구소(경주 소재)에서 개최된 첫날 세미나에서 경북대 김장억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안정적 식량확보의 중요성,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특히 도심지 주부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또 이튿날인 22일에는 (주)경농 대구공장을 방문, 생산현황 및 최신 자동화 시설에 대한 설



명회를 갖고, 철저한 위생과 관리 속에 생산, 출하되는 생생한 현장을 지켜본 소비자들에게서 농약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 성북구 보문6가에서 온 한복임씨는 “사실 농약사용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고 서울 광진구 중곡4동에서 온 이수자씨는 “안전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가게 되었다”고 말해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오는 10월과 11월에도 두 세 차례에 걸쳐 대소비자 안전성 강의 및 세미나, 견학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창립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내 최초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 전문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전용성)’이 지난 9월 28일 aT센터에서 「농업기술의 실용화 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설립 취지 및 사업설명’에 이어 ‘기술이전 조인식’을

갖고 ‘세계 농업기술 실용화 동향’에 대한 국과위 전문위원 성경일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제2부 주제발표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트렌드와 전략’에 이어 ‘농업기술 시장의 블루 마켓 전략기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공사례’, ‘국내 농업기술 실용화 추진 전략과 실천방안’ 등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경농, '스마트프레쉬' 아시아 과수산업 세미나서 호평

(주)경농(대표이사 이병만)에 '스마트프레쉬'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애그로프레쉬는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 과수산업 세미나에 참석하여 '스마트프레쉬'의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효과를 발표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애그로프레쉬의 제이너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획기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프레쉬'를 장기간 사용

하고 있는 아·태지역 고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는 '스마트프레쉬'를 사용한 이후 농산물의 풍부한 과즙과 신선한 맛, 그리고 외양이 수확 당시의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를 통해 농산물의 파밍 공급대에는 출하량을 조절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과수산업 유통업계 종사자 및 생산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수확 후 농산물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시켜 주는 제품으로서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38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프레쉬'는 우리나라에서는 (주)경농이 지난 2005년 등록하여 전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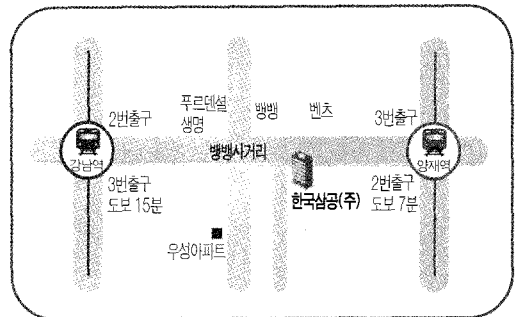
한국삼공, 서초동 신사옥으로 이전

한국삼공(주)(대표이사한태원)가 지난 9월 21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울의 중심인 서초구 서초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새 출발했다.

이번에 이전한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57-10(SG양재B/D)이며, 대표전화는02-2287-2900, 크로바서비스(무료상담 전화) 080-899-3030이다. 전 부서 및 직원 직통 전화번호는 종전과 같다.

한국삼공측은 이번에 이전한 서초동 신사옥에 대해 "각 부서별 독립공간과 부서 내 개방공간을 조화시켜 업무의 편의와 임직원의 업무 동선을 최대

한 효율적으로 설계한 최첨단 사무공간으로 업무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사옥 이전을 계기로 선진농업을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농업 및 농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하이텍·동부정밀화학, 'ONE-STOP' 서비스로 고객 만족

(주)동부하이텍(대표 차동천)과 동부정밀화학(주)(대표 이재관)의 콜센터(1644-0901)를 찾는 고객들이 날로 증가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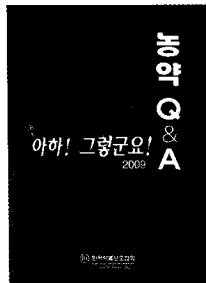
지난 2008년 7월 20일 'ONE-STOP 영농상담을 통한 고객만족'을 모토로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처음 시도된 콜센터는 전문적인 컨설팅과 작물보호, 작물영양, 종묘 등 농자재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 및 선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설립 1년여 만에 일 평균 900여건의 상담 콜을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농업계 최고의 콜센터로 자리매김했다.

전문상담 외에도 SMS를 통한 병해충 발생 정보, 매월 작물별 최신 영농정보, 기상에 따른 작물 재배정보 등 다양한 영농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고객만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동부하이텍 고객서비스팀 한태구 상무는 "콜센터 상담원들은 농업 현장과 생산 공장 등에서 심층적인 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라며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콜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물보호협, 「농약 Q&A - 아하! 그렇군요!」 책자 발행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는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형식인 「농약 Q&A - 아하! 그렇군요!」(4×6배판 124면) 책자 2,000부를 제작, 배부했다.



대소비자교육교재로 활용하게 될 이 책은 일본농약공업회가 발간한 '농약의 Q&A' 책자에 기초한 것이나 한국 실정에 맞게 대폭 수정, 보완한 책자로 병해충, 잡초 방제와 그 변천, 농약의 역할, 농약의 종류와 사용실태, 농약의 작용 메커니즘, 농약의 안전성, 농약의 잔류 등 총 제14장으로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갖는 여러

의문에 답함으로써 농약에 관한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인식 제고는 물론 일선 현장에서 농약의 적정사용 등에 대해 지도 교육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

■경농 △마케팅본부장 겸 마케팅부문장 이준영 부사장 △영업부문 부문장 이경택 상무 △영업전략팀장 최용석 부장 △마케팅부문 마케팅기획팀장 김영순 부장 △"신규사업팀장 최용석 상무 △"제품개발팀장 이진 상무 △"제품등록팀장 이창규 부장 △"관수사업팀장 여인철 부장 △"홍보보급팀장 김명수 부장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인종 부사장 △"재경팀장 겸 총무팀장 이동일 부장 △"경영기획본부 본부장 이승연 상무 △"연구본부 본부장 변상윤 상무 △"감사실장 김동락 상무이사

■한국삼공 △개발마케팅본부장 이지화 상무 △농업연구소장 정창국 이사 △기획실장 이성호 이사대우 △기획실 이광섭 부장 △충북지점장 정석교 부장 △충남지점장 변영태 부장 △강원지점장 정광수 부장 △경기지점장 문인환 부장 △경남지점장 박희인 부장 △제주지점장 김동준 부장

■스미토모화학이그로서울 △위재성 상무이사